

양캠퍼스 대동제를 평가한다

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고향통일제'도 이전의 대동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단순히 즐거위 위함이 아니었다.

28일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 출범식과 통일노래한마당 및 동아리연합회 학관제, 29일 민중연대한마당, 30일 경희가족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고 총학생회의 준비도 많았지만 현실상황의 수용이 연례되지 못한 점에서 부족함이 없지 않다. 학추위 출범식과 통일노래한마당의 경우 행사 자체는 별 무리가 없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것들 속에서의 연관성에서는 비란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았다.

또한 다음날에 있는 민중연대한마당은 각 단과나 동아리가 그간 계속적으로 연계를 맺어오던 동부지구에서 있는 화사의 노동조합과 함께 참여, 경연대회를 벌였으나 이 역시 행사 취지가 목적성 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있었던 '경희가족한마당'은 주최측의 준비가 돋보였고 서울, 수원 양캠퍼스 학생 1천여명이 참가해 가장 활기찬 행사였다.

과별 경연대회, 태권도, 응원단의 시범경기 및 공연, 노동자노래단 초청공연, 화기 삼거리까지 햇살이와 및 차전놀이로 순으로 진행된 이번 '경희가족한마당'은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행사로서 돋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희가족한마당'이 좀 더 발전을 해 나가려면 기획이나 내용에 있어서 참신하면서도 체계적이 아닌 것들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행사자체의 문제점 이외에도 행사장 주변의 환경과 학내 전반적 분위기가 이전의 오류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계속적인 문제점을 표출했다.

총학생회측은 학내주점에 대해 단과마다 2개씩을 상한선으로 정했는데 사실상 학내의 주점 숫자는 이에 비해 훨씬 많았었다. 이에 따른 학내 환경문제가 작년과 비교해서 개선의 흔적이 전혀 안 보였으며 또한 노름문화와 잡상인 출입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대동제는 분명히 지금의 정세와 맞물려 내용면에서 많은 것들이 담보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행사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특히 마지막날 경희가족한마당 중 성균관대생 김귀정(불문·3)양의 죽음과 관련한 성대 문과대

한편 이번 서천대동제의 경우 강경대 열사의 죽음과 학생들의 잇따른 분신으로 인해 확산된 반노태우, 반민자당 의식을 모아내고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승화 발전시킨다는 대동제하에 그간에 있었던 투쟁의 내용과 1학기 사업을 총화하고 이후 사업의 전망을 내기 위해 학생들을 조직화하여 이후 학생회 사업의 주제로 나서게 한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기획된 각종 대동제의 행사를 대략적으로 점검해 보면 총학생회 주최의 대규모 행사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각자치기구와 단과 및 과학생회, 동아리주최의 사업이 주를 이루어 진행된 대동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의 대동제에서 명시된 1학기사업의 총화와 학생들의 조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행사 확충 절실

하나됨의 자리 돋보인 '경희가족한마당'

참된 대동문화 정착으로 내용성 담보해야

비상대책위원회의 대동제 행사 전면 폐기와 전면적 가두투쟁의 제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흔히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 '늘고 먹는 대동제'가 진정한 경희의 대동자기가 되려면 아직까지도 준비해야 될 부분과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만일 그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똑같은 대동제가 개최될 것이다.

그러나 이 행사가 매년 이런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행사주최인 총학생회는 행사적이고 체계적인 것에서 벗어나 많은 내용들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직화를 위해서는, 총학생회 주최의 대동위 사업보다는 기존 하부단위 위주의 행사진행이 앞서서 말한 앞으로의 사업에 학생들을 주제로 세우는 진전을 위한 기획과 단과 학생회 강화에 용의하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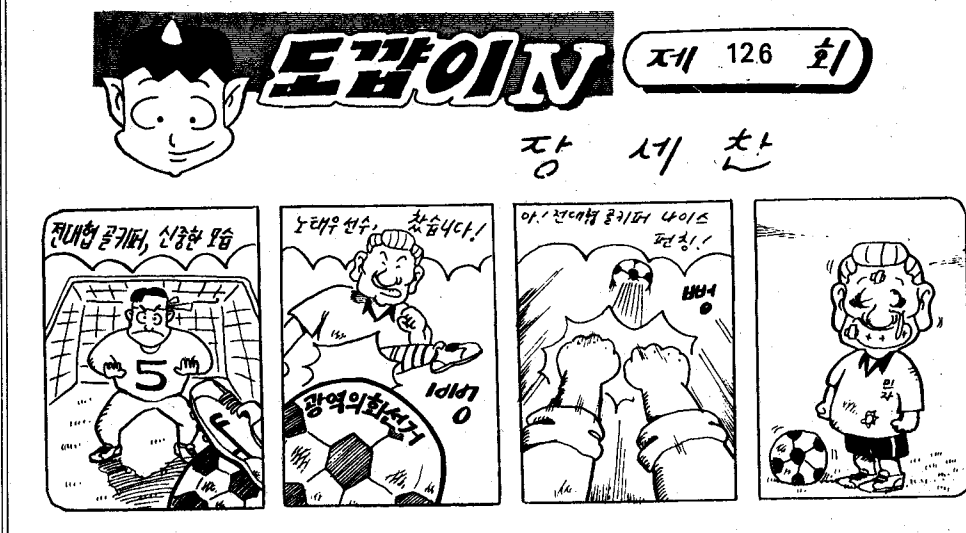
한편 세부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27일 전야제 행사는 과학생회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가수 안지환의 초청공연과 응원단 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짜임새있는 운영이 돋보였으며 학생들의 참여도 역시 근래에 보기드물게 높았던 것

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모처럼의 대동의 하나된 분위기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지도력의 미흡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매년 대동제 마다 치러왔던 '노동자·학생연대의 밤'은 홍보의 부족과 시간 설정의 착오로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에 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외에도 대동제 기간의 전체적 일정진행에 있어서도 중앙지도의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중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 서울캠퍼스와 같이 주점의 문제였다. 주점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신청을 받아 위치와 숫자 배정을 하였으나 가격이 있어 통제되지 않아, 날마다 가격의 변화가 생기고 또 각 주점마다 가격의 편차가 생기는 문제를 빚기도 하였다. 주점의 문제는 가격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숫자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로인해 대학사회의 다양성



인원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여기저기 살펴본 것을 토대로 이번 대동제의 총괄적인 평가를 내려보면 우선 학생참여면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 상당한 양적 발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반노태우, 반민자당 의식을 모아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화 시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주최측의 시일착박으로 인한 준비소홀에 있을 수도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들의 대동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일 것이다.

대동제는 단지 먹고 마시고는 자리만이나 아니라, 이와 더불어 학생전체가 하나되고 이를 기반으로 모두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자리라는 인식하에 진정한 대동문화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동의 장으로 승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취재부)

대의원회, 자치기구감사

수원캠퍼스 총대의원회는 오는 7월경 각 자치기구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계농촌활동이후 약 4백50명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감사는 공개감사를 원칙으로하며 이에따라 각 자치기구 감사시 자치기구당 1인씩 감사에 동참하게 된다.

이에따라 총 대의원회에서는 오는 7월까지 감사자료를 수집하며 이에 불응하는 자치기구에 대해서는 2학기 예산배정시 제재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결과에 대하여서는 2학기 개강과 동시에 대자보와 각과로 배포케될 문건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2학기중에 발간될 대의원회 신문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의원회에서는 2학기 개강과 더불어 학내복지 및 제반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하계 계절학교 개설

91학년도 하계계절학교가 서울캠퍼스 문리대학에서 7월8일부터 8월2일까지 4주간 개설된다.

교양교과목에 대해서 실시되는 이번 계절학교는 개설예정 교과목의 수강신청자가 10명이상일 경우에만 개설되며, 수강신청은 오는 24일부터 3일간 양캠퍼스 교무과에서 접수받는다.

이번 계절학교의 수강료는 학점당 3만5천원으로 서울캠퍼스

경리과에 7월 8, 9일 양일간 납부하면 된다.

또 계절학교가 폐지되고 계절학교에서 1, 2학기 과목이 동시에 개설됨에 따라 신청할 학생들은 1, 2학기 과목을 모두 수강할 수 있으나 다음학기 해당학년에 개설된 과목은 수강할 수 없으며 수강허용 학점은 6학점까지로 졸업할때까지 계절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12학점이다.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필요

▼신속기사가 개관을 한달 남짓 남겨놓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현실적으로 지방학생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서울 소재 대학의 특수성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본교에서의 이번 기사사 신속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사사에 대한 여러가지 것들, 즉 선발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 원칙을 살펴보면 간파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학교당국의 기사사에 대한 시안을 보면 신속기사가 3백68석 중 사법·외무·행정고시반과 공인회계사반 등 고시반 학생들에게 1백28석, 기존의 삼익원 학생들에게 1백8석을 배정한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학교의 한 관계자는 "기사사는 본래 지방학생을 위주가 되어야 하지만 현

실적인 학교의 명예문제로 생각할 수 없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였다. 원칙적인 면들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어쩔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기사사가 분명 지방학생, 저학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거 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논리가 고시반 학생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삼익원 학생들을 배척하는 것들은 아니나.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이 있고 또한 인정한다면 인원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한다. 또 한가지 운영원칙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학교당국은 기사사운영의 중심축으로 학생자치회의 결정권을 배제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학생자치회의 위상에 대해 의사개진은 할 수 있되 결정권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 학교측의 기본 입장인 듯 하다. 어떤 집단이나 조직도 구성원들의 공동 노력에 의한 합의점들을 도출하고 이에따라 움직여야 할 것이다.

▼학교의 모든 정책들은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들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 신속 기사사의 운영방법이나 선발기준안을 보았을때 이러한 것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함께 학교당국의 이런 부실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고시반의 우려가 기우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이번 서천대동제의 경우 강경대 열사의 죽음과 학생들의 잇따른 분신으로 인해 확산된 반노태우, 반민자당 의식을 모아내고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승화 발전시킨다는 대동제하에 그간에 있었던 투쟁의 내용과 1학기 사업을 총화하고 이후 사업의 전망을 내기 위해 학생들을 조직화하여 이후 학생회 사업의 주제로 나서게 한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기획된 각종 대동제의 행사를 대략적으로 점검해 보면 총학생회 주최의 대규모 행사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각자치기구와 단과 및 과학생회, 동아리주최의 사업이 주를 이루어 진행된 대동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의 대동제에서 명시된 1학기사업의 총화와 학생들의 조

'92학군 사관 후보생 모집

(R.O.T.C.)

- 모집인원: 000명
 - 지원자격: 가. '91년도 4년제대학 2학년 재학생 나. '70.1.1~'74.3.1 출생자(18세~22세 미만) 다. 장교 임관 결정사유 없는 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91.5.20~6.20(학군단본부) 나. 구비서류
지원서 접수시 신검검사시
·지원서 및 서약서 1부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21부
·대학입학 및 1학년 성적증명서 1부 ·사진(4×5cm) 2매
·교과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사진(4×5cm) 1매
 - 선 발: 대학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인품검사
 - 합격자발표: '91.12.23
 - 특 전: 가. 무시험 선발 나. 소위임관, 중위전역 또는 부무연장, 장기복무 다. 의무 복무 기간: 2년 4개월(장교중 최단기) 라. 회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마. 전역 시 직업보도실시 바. 대기업체 학군출신장교 우대선발 및 처우
- 문의처: 경희대학교 학군단 본부(T.962-9004, 교내:0087)

'91대학장학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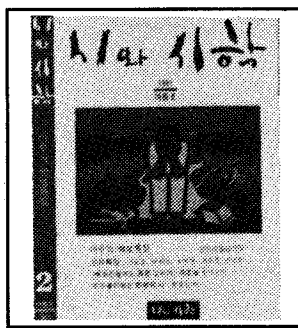
(학군·학사사관)

- 모집인원: 1학년(0000명), 2학년(000명)
 - 지원자격: 4년제대학 1학년('69.1.1~'75.1.1 출생자) 2학년('68.1.1~'74.1.1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91.4.1~6.20(학군단 본부) 나. 구비서류
1차(지원서) 2차(신체검사시)
·지원서(사관합의) 및 서약서 21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21부
·세정보증서, 납세 및 인감증명서 21부
·대학입학 및 성적증명서 21부 ·사진(4×5cm) 3매
 - 선발절차 가. 1차: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나. 2차: 신체검사
 - 합격자 발표: '91.9.30
 - 특 전 가. 학군 및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나.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지급(91년도 장학금 163만원 -92년도 223만원 지급예정) 다. 회망 및 전공 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라.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 문의처: 학군단 본부(T.962-9004, 교내:0087)

제108학생군사교육단장

유월 하늘이 온통 신록의 품새로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이와 화제의 책「시와 시학」매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이수익집중연구

알뜰 랭브 100주기 특징

〈연재시〉 박두진 <수석영가 II> / 조병화 <시로 쓰는 자서전〉

〈신작연재〉 — 절간이야기 / 조오현

◇ 신작특집 / 김규동, 박희진, 오세영, 조우성, 이준관

기획논· II — 현대시의 기점문제 윤여탁

동시시인의 정신세계② / 조종일

◇ 재조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윤영천 외

◇ 내가 좋아하는 한편의 시 / 최불암, 김혜자 외

〈초대시인〉 임강민, 마중기, 김영태 외

교과서수특시 펄싱

제1회 신인당신작 발표 / 김달진 문학상특집

제1회 <수국·시와 시학교설> 개설 (총무·한려수도)

*「새로운 시인상, 평론가상」제정.

*「중년신인 작품발굴공모」.

* 정기구독가입회권은 시당상서「그대 왜 그리 허둥대는가」를 기념으로 증정합니다.

통권 제2호 여름호 440원 값 5,000원

서울 서초구 잠원동 14-10

Tel 594-0928

한신 City 21 오피스텔 913호

Fax 594-0929

누가 눈물없이 울고 있는가

오늘의 명시감상서

시를 쓰는 마음

시를 읽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리고 대지의 풀잎.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이 아날런지

이것이

오늘의 명시감상서

시를 쓰는 마음

시를 읽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리고 대지의 풀잎.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이 아날런지

이것이

오늘의 명시감상서

시를 쓰는 마음

시를 읽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리고 대지의 풀잎.

불교의 명시감상서

“하늘과 땅이라는 여관에

이슬과 번개같은 물결

잠만 의지하였네

온산의 대숲에 달이 밝은데

홀로 앉아 비취 새소리 들린다”

이것이

오늘의 명시감상서

시를 쓰는 마음

시를 읽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리고 대지의 풀잎.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이 아날런지

이것이

오늘의 명시감상서

시를 쓰는 마음

시를 읽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리고 대지의 풀잎.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이 아날런지

이것이

오늘의 명시감상서